

##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정아름\*\*·이준영\*\*\*

### 초 록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이 지각한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둘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LoWF) 1차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유자녀 기혼여성 6,210명의 응답자료를 SPSS 25.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은 출산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이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과 관련하여 학술적·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청소년기 가정환경, 출산행동, 가족가치관, 결혼만족도, 여성가족패널, 병렬다중매개효과

\* 본 논문은 정아름(2021)의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454).

\*\* 제1저자: 서울시립대학교 박사(soapdoll8@naver.com)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jylee@uos.ac.kr)

## I. 서론

2020년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84명(통계청, 2021)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OECD, 2018)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국이 되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은 복잡한 해외정세(북한 핵 문제, 미·중 무역 전쟁 등)가 아니라 바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지적하였다(Lamer, 2018).

학계에서는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저출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이후부터 관련 연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정책 초기(2006~2010)에는 주로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구학적·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지적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현옥, 2011; 김한곤, 2015; 송헌재, 2012; 노상미, 2015; 이상림 외, 2019). 경제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주거형태와 자가소유 여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가계경제 수준이 자녀 양육 부담에 영향을 작용하여 자녀 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sterlin, R. 1975; 공선영, 2006; 정혜은·진미정, 2008; 정성호, 200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진행되었던 시기에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출산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며(송헌재, 2012; 정성호, 2012), 2019년 3월에 발표된 수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큰 전환을 맞았다. 즉, 출산장려가 아닌 저출산을 야기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이를 해소하여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최근에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는 연구(진경선, 2018; 오유석, 2015)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가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부부의 입장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같은 것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문정희·김성순, 2019).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해섭·문호영, 2020; 임희진 외, 2008). 청소년

기는 급격한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이렇게 형성된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내적신념으로 자리 잡아 성인기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경애 외, 2010; 서인균·이연실, 2019). 특히 이 시기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은 부모이다(김정은, 2010; 김경신, 1998; 한상철, 2004). 부모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첫 번째 사회 환경이기 때문이다(박경애 외, 2010; 서인균·이연실, 2019; 이다경, 2015).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은 부모 세대의 가치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성인기 자녀에게까지 나타났다(조성남·최유정, 2002; 오윤자·조소연, 2001).

이런 점을 출산행동에 적용하면, 청소년기에 노출된 가정환경의 특성은 현재의 출산행동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성인기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정아름, 2018)가 수행되었다. 부모의 결혼생활 갈등과 적절하지 않은 양육태도로 인해 형성된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무자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공미혜·이수연, 2012; 이수현, 2012),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유년시절을 보냈을 경우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양성은, 2004; 이민아, 2013). 염주희 외(2013)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가정환경 요인이 성인이 된 부모의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상기 연구 외에는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희소하다. 청소년의 출산의식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가족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연구(홍표자, 2010)가 있으며, 청소년의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인식 조사(이삼식, 2006; 김태현 외, 2006; 정미경 외, 2007; 신효영·방은령, 2008; 차우규, 2015)가 일부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도 출산행동과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오신휘·김혜진, 2020)하면서 청소년기에 결혼·가족·자녀(출산)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일생 경험할 결혼 및 가족가치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김태현, 2005). 따라서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청소년기 가정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요인으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의 삶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기에 이들의 가족가치관이 출산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강세창, 2019; 이완, 2018; 서정연·김한곤, 2015). 또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족 내의 중요한 생애 사건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박상미, 2018). 즉,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는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요인은 출산행동에 직·간접적인 매개변수로 활용되었는데, 결혼만족도가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원 보다 출산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연구(이소은·김미나, 2017; 송민영, 2018)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가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출산행동은 대부분 결혼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미 출산행동을 이행한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은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3.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는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

여성의 출산행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학적 요인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거론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 시기, 교육 수준, 취업 여부 등이 있다(노병만, 2013; 이삼식 외, 2014; 변두영, 2015).

일반적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신 가능성이 높고, 가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출산행동 또한 상대적으로 더 높다(이상임, 2019; 김사현, 2009; 이삼식·최효진, 2014).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있더라도 가임기간이 짧아지고 임신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 출산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결혼 시기 또한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승권 외, 2004; 도미향, 2011; 김태현 외, 2006; 한종수, 2010; 장영남, 2013; 임현주, 2013).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산행동으로 이행되는 속도가 빠르며, 반대로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법률혼의 상태가 되는 결혼 시기는 출산행동을 발현하는 인구학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도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현 외, 2006; 공선영, 2006; 김사현 2009; 이성용, 2009; 이미란, 2010). 또한 이삼식 외(2014)의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높은 성평등 의식과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출산행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행동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한다(노상미, 2015, 임현주, 2013). 이삼식 외(2016)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저학력 기혼 여성들의 출산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 학력과는 무관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산 연령 또한 30대 이후에 집중되면서 학력의 영향력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의 학력은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는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임신과 출산 전반의 과정이 여성의 몸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므로 여성의 진로와 경력 단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또한 출산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지적 된다(Beck & Beck-Gernsheim, 1999). 임신하게 되면 취업 여성은 비취업 여성보다 출산 시 더 많은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이러한 간접비용의 증가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인순, 2011; 정성호, 2010; 강유선·김찬우, 2018). 즉,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행동과 선택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종합하면, 여성의 인구학적 요인은 여성의 출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요인은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변화되는 인구 구조의 전망과 같은 해석의 관점을 주지만, 정책으로 삼아 적용하기에는 요인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2. 출산행동과 청소년기 가정환경 간의 관계

출산은 여자가 임신하고 낳는 전체 과정의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출산 행동은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인 임신·출산’이며, 사회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생산’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이희연, 2003). 즉,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생 설계 문제로서의 개인적인 입장과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적절한 인구 재생산을 유도하려는 사회적인 입장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행동인 동시에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백나영, 2013).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은 행위를 출산행동으로 보았으며, 출산의 실행 여부 혹은 출산 자녀수로 측정하였다(배광일, 2015; 진경선, 2018; 노상미,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행동을 기혼여성이 아이를 직접 낳은 행위로 정의하고 실제 기혼여성이 응답시점에 낳은 자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에릭슨(Erik H. Erikson)의 점성원리(epigenetic principle)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Erikson, 1968). 이 단계를 순조롭게 극복할 경우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Erikson, 1968). 청소년기에 정체성 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성인초기에 친밀감을 잘 발달시키게 되고, 성인 중기에는 정체성의 범위를 확장하여 남녀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Erikson, 1968). 이렇게 형성된 깊은 친밀감은 둘의 관계를 넘고 확대되어 자녀를 낳고 자 하는 생식성(generativity)을 발달시키게 된다(Erikson, 1968). 생식성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생산성(productivity)과 창조성(creativity)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Erikson, 1968).

이처럼 중요한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모델의 유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J., 1984; Hurlock E.B., 1978). 역할모델은 개인의 가치, 성격, 행동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인(動因) 중의 하나이며,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Belsky J, 1984),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Greendorfer, 1977)으로 보고된다. 대부분의 자

녀는 역할모델의 대상으로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까운 가족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다(Hurlock E.B., 1978). 익숙한 가족과의 비교를 통해 기초적인 사회를 학습하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Hurlock E.B., 1978). 그중에서도 부모는 가장 가까운 타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다(Bryant & Zimmerman, 2003). 부모는 1차적인 성역할 모형이 되기 때문이다(Bryant & Zimmerman, 2003). 정리하면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는 영향력 있는 성인역할모델이 되어 자녀의 사회화,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다(류현수 외, 2007).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이들을 둘러싼 다층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Bronfenbrenner, 1979). 그의 생태학적 이론(ecological theory)에서는 청소년의 유전적 요인, 가정의 역사,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생활의 질, 문화적인 배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Bronfenbrenner, 1979).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는 개인의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등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Bronfenbrenner, 1979). 생태체계는 유기체와 같이 상호 의존적인 여러 개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하위체계들의 작동은 상호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마치 하나의 단위처럼 함께 작동한다(Bronfenbrenner, 1979). 그중에서 미시체계는 인간이 접한 가장 직접적인 환경을 말하며, 유의미한 타자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곳이다(Bronfenbrenner, 1979).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정환경,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학교 등을 미시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미시체계는 상호호혜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체계가 긍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영향력을 발휘하면 발달의 성공을 위한 보다 확실한 기회가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박화윤 외, 2010; 김경중, 2003; 조흥식, 2006; 브론펜브레너, 1991).

상기의 논의를 정리하면, 청소년기는 이후 성인기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달 시기이며, 이 시기에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체계는 바로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가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총괄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포함한다. 특히 성인기에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를 갖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기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후 성인기 행위의 근거 해석에 많은

단서를 제공하며, 출산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무자녀 또는 다자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혼여성의 과거 가정환경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공미혜·이수연(2012)은 무자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녀 결정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무자녀 결정경험에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에서 조사(2019)한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본인이 형제가 많을 경우 자신 또한 다자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외에도 다자녀를 이루게 된 계기에 관한 연구(강혜진, 2009; 이해경, 2011) 결과 자신의 유년시절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각한 청소년, 대학생의 경우 향후 자신의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모역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가 존재한다(신희진·이경숙, 2006). 반면,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더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홍표자, 2010).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출산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3. 출산행동과 결혼만족도, 가족가치관의 관계

출산행동에 있어서 결혼만족도는 매우 연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여성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족 내의 중요한 생애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한데, 박상미(2018)의 연구에서는 출산이 부부단위의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생활의 장에서 이뤄지고 남편은 부인과 가정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행동이 이행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영주 외, 2011; 김미영, 2006; 신나리, 2013, 이진숙·최원석, 2012; 임양미, 2015). 진경선(2018)은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후속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의 심리적 변인을 분석하였는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7년 이내 출산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김은경·박신애(2019)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 위험률이 낮아질수록,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적극적



인 양육 참여는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주어 출산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순, 2003; 송영주 외, 2011; 강유진, 2007; 김은경·박신애, 2019). 반면에 아내가 남편에게서 존중받지 못하여 부부갈등이 심화하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출산의지에 회의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윤경자, 2010). 백승숙(2020)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출산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상호교환적인 관점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가치관은 '결혼 및 자녀와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주변 환경과 사회적 관념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따라 형성되는 특성으로 인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실제 출산행동에 적극적이며, 자녀수도 많은 것이 밝혀졌다(김상돈·김혜영, 2015; 이정원, 2007; 이미란, 2010; 이현옥, 2011; 강세창, 2019; 이완, 2018). 실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기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두 자녀 이하 가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영혜, 2006). 또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가치관을 견지할수록 희망하는 자녀수와 출산 자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사현, 2009; 이진숙·최원석, 2012; 배광일·김경신, 2012). 반면, 대학생이나 청소년의 경우 성평등에 대한 역할인식이 높을수록 기대자녀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홍표자, 2009),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이 평등하여 성 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이소영, 2007; 신효영, 2009).

#### 4.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결혼만족도, 가족가치관 간의 관계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성인기 결혼생활 만족과도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전 원가족 부모세대의 상호작용이 자녀 세대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원가족에서 습득된 경험요인이 현재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김남진·김영희, 2010; 하상희 2008). 즉 부모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해온 경우 그 자녀도 결혼에서 행복감을 경험하기 쉽고 이혼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고된다(Forrest, 1991; Bartle-Haring & Sabateli, 1998).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홍대식, 2005; 임준호, 2018), 부모

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한 성인기 자녀는 자신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김경주·김영혜, 2015). 서인균·이연실(2019)은 부모의 결혼생활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과 부모상이 청소년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부관계에 친·인척 관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부부중심의 서구권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김희진, 2004).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결혼생활은 자녀의 결혼생활에 모델이 되며 자녀의 성공적인 결혼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성인 자녀의 결혼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가족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자녀는 부모의 행동과 생각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화하기 때문이다(Belsky J., 1984; Hurlock E.B., 1978). 이로써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전수 받게 되고 실제로 가족가치관이 세대 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연구도 존재한다(김경신, 1998; 최소영·장진경, 2016).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미혼 성인자녀가 영향을 받는 연구도 존재한다(오윤자·조소연, 2001). 부모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따를 경우 자녀들의 결혼가치관도 긍정적이었던 연구결과를 밝히기도 했다(은기수, 2001). 권복순·김태자(2010)의 연구에서 20~30대 여성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엄격한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이혼과 별거 경험 여부에 따라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김혜환,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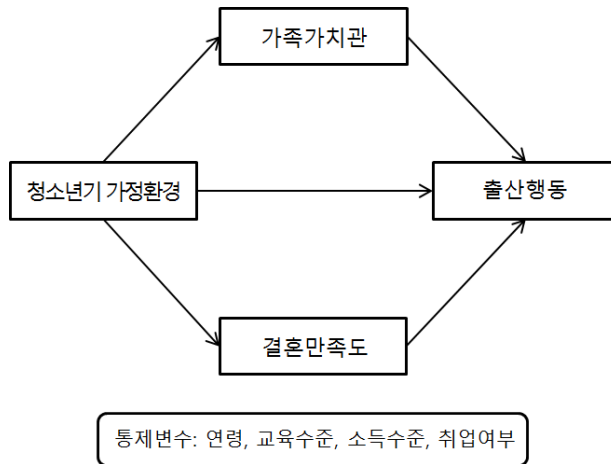
요약하면 청소년기 노출된 가정환경은 성인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자료출처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여성가족패널은 여성과 가족의 경제활동, 가족생활,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출산 및 돌봄 등 가족 내 행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자료이며 1차연도(2007년)와 2차연도(2008년) 조사는 1년 주기로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격년마다 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출된 9,068가구에 거주하는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연도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개인용 설문 조사에 답변한 응답자 중 본인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6,21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자료이며 이용을 원하는 연구자가 자료 사용 목적을 밝히는 신청절차를 거치면 설문지와 원자료를 내려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되어 있다.

###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 출산행동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은 “응답자가 실제로 출산한 현재 자녀수”로 정의한다. 재혼과 입양을 통해 생겨난 자녀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패널 자료에서 [임신 및 출산경험과 자녀계획]의 현재 자녀수에 대한 조사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녀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 2) 청소년기 가정환경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청소년기 가정환경이다. 본 연구에서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이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청소년기(15세 무렵) 가정의 구조적, 사회경제적, 기능적 요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여성가족패널 [성장과정] 설문 중 응답자의 15세 무렵의 부모와의 동거여부, 집안의 경제적 형편, 부모의 학력, 부모 간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태도 항목으로 회상에 의한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과정은 1차 조사 당시 모든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차 조사부터는 신규 응답자만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이다<표 1>.

〈표 1〉 청소년기 가정환경 문항

변수		문항내용
구조적요인	부모동거	_님은 15세 무렵 부모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경제적 형편	_님이 15세 무렵에 집안의 경제적 형편은 어떤 편이셨습니까?
사회경제적요인	부모 교육수준	_님의 아버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_님의 어머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기능적요인	부모간의 친밀도	_님이 15세 무렵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양육태도	_님이 15세 무렵에 부모님은 귀하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관측변수의 방향성에 따라 일반집단과 취약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

약한 상황에 처한 가족의 자녀로 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는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이 해당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가정경제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모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가정의 기능적 요인은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다경, 2015; 박경애 외, 2010; 서인균·이연실, 2019).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기 가정환경 수준을 측정하고자 청소년기 가정환경을 일반집단과 취약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취약집단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부모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양육태도가 엄격한 가정을 의미한다(표 2). 따라서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총점이 높을수록 취약한 가정환경의 특성을 나타낸다.

〈표 2〉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른 집단 구분

구분		일반집단	취약집단
구조적 요인	부모동거	부모님과 함께 동거	부모님 중 한분과 동거 부모님과 비동거
	경제적 형편	아주 잘 사는 편, 대체로 잘 사는 편, 보통	대체로 어려운 편, 아주 어려운 편
사회경제적요인	부모 교육수준	부모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상	부모의 무학
	부모 간의 친밀도	아주 좋은 편, 대체로 좋은 편, 보통	별로 좋지 않은 편, 매우 좋지 않은 편
기능적 요인	양육태도	아주 엄격한 편, 대체로 엄격한 편, 보통	별로 엄격하지 않은 편, 전혀 엄격하지 않은 편

### 3) 가족가치관

본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은 “결혼 및 자녀와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로 정의한다. 하위개념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패널 자료에서 [가족관련 가치관]의 4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수준과 기존의 남녀 성역할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47로 나타났다.

### 4)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현재의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느끼는 교류적·

정서적·인지적 요인에 대한 만족수준”으로 정의한다. 여성가족패널 자료에서 [결혼과 부부생활]의 7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65로 나타났다.

####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작성시점인 만 나이로 측정되어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0), 고등학교 졸업(1), 대학교 학력(2)로 구분하여 변환하였다. 취업여부는 취업(1)과 비취업(0)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연소득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인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가 제안한 Process Macro ver.3.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는 단순 혹은 다중매개 모델의 직, 간접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OLS) 혹은 최대우도추정법(MLE)과 Newton Raphson 방법 등을 기반으로 한 경로분석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이진(binary)변수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하여 매개효과 분석이 가능하다(Hayes, Mattes, 2009). 부트스트랩은 원자료가 정규성을 보이지 않아도 부트스트랩 표본들을 이용해 신뢰구간을 통한 가설검정을 하는 장점이 있어서 매개분석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 수천 번의 재표본추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트스트랩 방법의 특성상, 과거에는 컴퓨터 성능이 낮아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적었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추정작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청소년기 가

정환경이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개별 경로를 통해 출산행동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각 매개효과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6,21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연령은 30세 미만 366명(5.9%), 30~39세 2,294명(36.9%), 40~49세 1,761명(28.4%), 50~59세 1,308명(21.1%), 60세 이상 481명(7.7%)으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1,776명(28.6%), 고졸 2,615명(42.1%), 대학 이상 1,819명(29.3%)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여부는 비취업 3,716명(59.8%), 취업 2,494명(40.2%)으로 나타났다. 평균 출산 자녀수는 2.2명이었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N	%
연령	30세 미만		366	5.9
	30~39세		2,294	36.9
	40~49세		1,761	28.4
	50~59세		1,308	21.1
	60세 이상		481	7.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76	28.6
	고졸		2,615	42.1
	대학 이상		1,819	29.3
취업 여부	비취업		3,716	59.8
	취업		2,494	40.2
전체			6,210	100.0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출산행동	1.00	9.00	2.20	0.88

## 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산행동은 청소년기 가정환경( $r=.227, p<.001$ ), 가족가치관( $r=.217,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결혼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158, p<.001$ ).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147, p<.001$ ),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194, p<.001$ ). 또한 측정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4).

〈표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기 가정환경	가족가치관	결혼만족도	출산행동
청소년기 가정환경	1			
가족가치관	.147***	1		
결혼만족도	-.194***	.003	1	
출산행동	.227***	.217***	-.158***	1

\*\*\*  $p<.001$

## 3.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종속변수인 출산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beta=.046, p<.001$ ), 통제변수에서는 연령( $\beta=.364, p<.001$ )과 직업 있음( $\beta=.057, p<.001$ )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수준( $\beta=-.131, p<.001$ )과 소득( $\beta=-.026, p<.05$ )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출산행동에 대한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25.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매개변수인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beta=.035, p<.01$ ), 통제변수에서는 연령은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beta=.265, p<.001$ ), 교육 수준은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eta=-.068, p<.001$ ). 가족가치관에



대한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10.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매개변수인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beta = -.034$ ,  $p < .01$ ), 통제변수에서는 연령( $\beta = -.165$ ,  $p < .001$ )과 직업 있음( $\beta = -.042$ ,  $p < .001$ )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수준( $\beta = .203$ ,  $p < .001$ )과 소득( $\beta = .110$ ,  $p < .001$ )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1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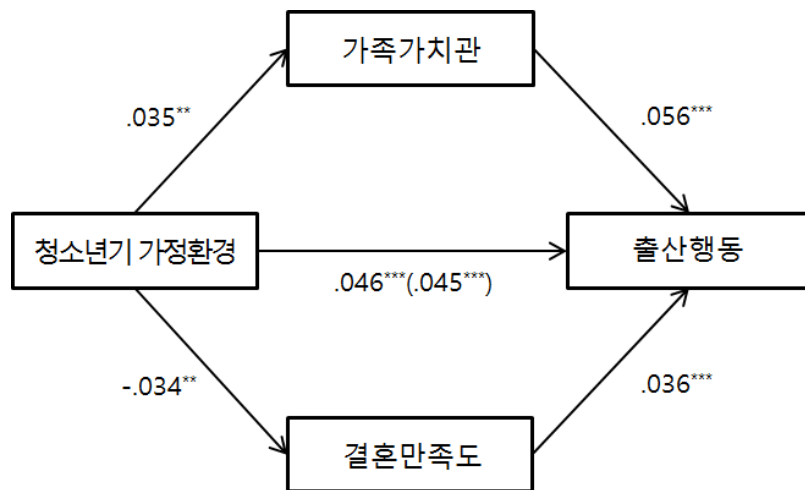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 $\beta = .045$ ,  $p < .001$ )과 매개변수인 가족가치관( $\beta = .056$ ,  $p < .001$ ), 결혼만족도( $\beta = .036$ ,  $p < .01$ )는 출산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통제변수에서는 연령( $\beta = .355$ ,  $p < .001$ )과 직업 있음( $\beta = .060$ ,  $p < .001$ )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수준( $\beta = -.135$ ,  $p < .001$ )과 소득( $\beta = -.029$ ,  $p < .05$ )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출산행동에 대한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가족가치관, 결혼만족도,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25.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매개변수인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가 출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를 통한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출산행동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출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를 통해서도 출산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표 5).

〈표 5〉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DV:출산행동		DV:가족가치관		DV:결혼만족도		DV:출산행동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청소년기 가정환경		0.035	.046	0.067	.035	-0.062	-.034	0.035	.045
가족가치관								0.022	.056
결혼만족도								0.015	.036
통제 변수	연령	0.032	.364	0.060	.265	-0.036	-.165	0.031	.355
	교육 수준	-0.152	-.131	-0.202	-.068	0.571	.203	-0.156	-.135
	소득	-0.022	-.026	-0.034	-.015	0.230	.110	-0.025	-.029
	취업	0.103	.057	-0.073	-.016	-0.185	-.042	0.107	.060
F(R2)		420.737*** (.253)		150.744*** (.108)		248.529*** (.167)		307.333*** (.258)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별 매개효과 크기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가족가치관을 통하여 출산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0003, 0.0029]이고,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결혼만족도를 통하여 출산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0020, -0.0001]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또한 두 매개효과의 차이가 95% 신뢰구간이 [0.0023, 0.0003]으로 나타나, 그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두 매개효과의 크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표 6).

〈표 6〉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및 매개효과 간 차이 검증

(n=6,210, bootstrap=5000)

매개변수	B	S.E.	95% CI	
			LLCI	ULCI
M1 가족가치관	0.0015	0.0007	0.0003	0.0029
M2 결혼만족도	-0.0009	0.0005	-0.0020	-0.0001
매개효과 차이(M1-M2)	0.0024	0.0002	0.0023	0.003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둘의 영향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학술적·정책적·실천적 접근에 있어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여성가족정책연구원「한국여성가족패널」1차연도(2007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6,21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출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된 측면은 현재 출산행동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과거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특징이 현재의 성인기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에 경험한 가정환경이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김태현(2005)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자녀 결정이나 다자녀를 형성하는 데 유년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공미혜·이수연, 2012; 이수현, 2012; 양성은, 2004; 이민아, 2013; 염주희 외, 2013; 이해경, 2011)를 지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가족가치관 경로를 거쳐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을 경우 가족가치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출산행동에 영향을 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가치관은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이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실제 출산행동에 적극적이고 자녀 수도 많다는 선행연구(김상돈·김혜영, 2015; 강세창, 2019; 이완, 2018)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결혼만족도 경로를 거쳐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출산행동에 영향을 부(-)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는 청소년기 가정

환경과 출산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출산행동에 적극적이고 출산이행 확률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홍대식, 2005)와 맥을 같이한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 청소년기 가정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 가족가치관, 결혼만족도와 같은 성인기의 행동과 가치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의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이며, 특히 일시적 또는 지속해서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탄력 있게 적응함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금까지 출산양육정책이 미혼자에게는 결혼 이행을 지원하고, 기혼자에게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측면이 있다면 향후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에서 본 연구결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건전한 가족가치관의 형성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가족가치관은 출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가치관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도 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여성의 가족가치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생애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법률제도와 출산이라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형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점은 인간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얻게 될 성장과 같은 내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처럼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성별과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성평등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은 중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고민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발표된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 기본계획」(2020년 12월 발행)에 나타난다.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적 대응을 고민하는 연구(정문성 외, 2016)가 교육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가족생활주기 변화를 고려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혼여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 가사와 육아 참여를 받게 되면 이들은 육아에 따른 우울과 스트레스 보다 긍정적인 대처자원으로 인식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가족생활 주기는 단계별로 가족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게 심리적·물질적 준비를 새롭게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생활 주기에 맞추어 개입 방안을 달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과 지지는 미래세대에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신뢰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복한 양육문화 형성에 단초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여성에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미혼(비혼)여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남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로써 더 포괄적으로 성별과 생애주기에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된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경우 패널데이터가 구축된 2007년도의 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근에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 과거를 '회고'하여 응답한 자료로서 실제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향후 성인기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소년기 가정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함께 추적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했으나, 측정 문항의 한계로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분석을 위해 취약한 가정환경을 구분하는 기준에 사용된 '양육태도'와 같은 문항은 '엄격한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관점에 따라 취약하다고 보기에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문항이 구체적으로 보완된다면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출산행동의 '현재 자녀 수'는 생애 과정

동안 축적되고 누적된 결과이다. 따라서 미래 행위를 전망하고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에는 ‘추가자녀 계획’을 종속변수로 산입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 당시 응답자(기혼)의 87.2%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현재 자녀수에 만족해서’가 1순위를 차지하는 자료의 한계로 이를 분석대상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런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에 미치는 과거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현재의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세창(2019). 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유선·김찬우(2018).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10권. 59-84.
-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4호. 639-653.
- 강혜진(2009).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공미혜·이수연(2012). “무자녀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경험”. 가족과 문화. 제24권 제2호. 39-63.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1권. 119-149.
- 권복순·김태자(2010). “20대, 30대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23-548.
- 권수정(2008). 기혼 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박세경·이건우(200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권 제2호. 43-65.
- 김경주·김영혜(2015).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제3호. 93-112.
- 김경중(2003). 아동발달심리. 학지사.
- 김미영(2006).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진·김영희(201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1호. 197-225.
- 김사현(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113-137.
- 김상돈·김혜영(2015). “가족가치관과 가족 내 역할이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결혼

- 연령의 매개효과 분석-”.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85-307.
- 김정은(2010).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환경요인에 관한 차이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1-23.
- 김태현(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6-24.
- 김은경·박신애(2019). “후속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성 및 지역 사회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제7호. 443-454.
- 김한곤(2015). “미혼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시적 분석: 1990~2010”. 민족문화논총. 제61권. 147-172.
- 김혜환(2008).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5권 제3호. 839-853.
- 노상미(2015). 기혼여성의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 결정요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도미향(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4호. 163-178.
- 류현수·이정아·김주아(2007). 가족관계와 복지. 서울:동문사.
- 문정희·김성순(2019). 가치관 분석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경애·김혜원·주영아(2010).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고양:공동체.
- 박상미(2018). “가족네트워크 하위요인의 대화와 지지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9권 제2호. 221-232.
- 박화윤·임경례·강영식·이연희·조진희(2010). 부모자녀관계론. 서울:동문사.
- 배광일(2015).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1호. 31-53.
- 배광일·김경신(2012).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책이 희망자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3호. 239-266.
- 백나영(2013). 출산환경요인과 출산의지와와의 관계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승숙(2020).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협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브론펜브레너, 유리(1991). 브론펜브레너가 본 미국과 소련의 아이들. 문용린·김영철(역). 샘터.



- 서정연·김한곤(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구학. 제38권 제3호. 1-24.
- 서인균·이연실(2019)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부모됨 인식이 결혼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제21권 제4호. 149-168.
- 송민영(2018). “일가정양립정책, 직무만족도가 부부관계를 매개하여 취업모의 후속출산의도와 자녀가치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제13권 제3호. 5-32.
-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185-206.
- 송헌재(2012).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제14권 제3호. 51-78.
- 신나리(2013).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405-420.
- 신효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효영·방은령(2008).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3호. 95-113.
- 신희진·이경숙(2006). 한국 대학생과 어머니의 형제수 및 자녀수에 대한 만족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 연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 양성은(2004).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른 대학생들의 무자녀가족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5호. 149-159.
- 염주희·정승은·주영선(2013). “다자녀 가정의 출산배경과 지원정책 욕구 분석에 관한 연구: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保健社會研究. 제33권 제1호. 35-77.
- 오신휘·김혜진(2020).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保健社會研究. 제40권 제3호. 492-533.
- 오유석(2015). “저출산과 개인화: ‘출산파업론’ vs ‘출산선택론’”. 동향과 전망. 제94권. 45-92.
- 오윤자·조소연(2001).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271-284.
- 오해섭·문호영(2020).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경자(2010). “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한국인구학. 제33권 제2호. 137-163.

- 윤영혜(2006). 세 자녀 이상 가정과 두 자녀 이하 가정의 출산관련 요인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은기수(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 35권 제6호. 105-139.
- 이다경(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1호. 99-121.
- 이민아(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 한국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제47권 제2호. 143-176.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2호. 95-140.
- 이삼식·최효진(2014).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계봉오·김경근·김동식·서문희·윤자영·이상협·이윤석·천현숙(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립·이철희·오신휘(2019).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2007).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소은·김미나(2017). “보육서비스 만족도, 사회적 지원이 한 자녀 어머니의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제 22권 제3호. 25-43.
- 이수현(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 연구. 제22권 제3호. 43-88.
- 이인순(2011).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완(2018).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5-19.
-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진숙·최원석(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성역할 태

- 도, 일가족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연구회. 제43권 제4호. 5-30.
- 이혜경(2011).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유아교육학회집. 제15권 제6호. 377-406.
- 이현옥(2011). “한국여성의 출산의지 결정요인”. 정책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99-135.
- 이희연(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도서출판 법무사.
- 임양미(2015).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한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 예측요인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7권 제4호. 155-172.
- 임준호(2018). 원가족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현주(2013). “인구, 사회학적 변인, 경제변인, 양육, 출산변인에 따른 후속출산 계획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3권 제3호. 35-58.
- 임희진·김지연·이경상·곽수민(2008).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영남(2013).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문성·박기범·설규주·김경모(2016).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교육적 대응과 사회과교육 모델 개발.
- 정미경, 박효정, 박종호, 김태은(2007).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요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0권 제1호. 145-171.
- 정성호(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제32권 제2호. 161-183.
- \_\_\_\_\_(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제49권 제1호. 69-91.
- \_\_\_\_\_(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35권 제1호. 31-52.
-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제31권 제1호. 147-164.
- 조성남·최유정(2002).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33-166.
- 조흥식(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 정아름(2021).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 결혼만족도와 가족가치관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8).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 가족가치관이 출산의지에 미

- 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3호. 147-174.
- 진경선(2018). “저출산의 심리적 요인”. 아산재단 창립4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47-167.
- 차우규(2015). “청소년의 결혼·출산관 연구”. 인구교육. 제8권. 91-114.
- 최소영·장진경(2016).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인식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2권 제54호. 81-195.
-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 하상희(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2호. 129-141.
- 한상철(2004). 청소년학: 청소년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한중수(2010).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 평화학연구. 제11권 제3호. 305-327.
- 홍대식(2005). “결혼의 질과 지속의사에 관련된 혼전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2호. 67-90.
- 홍표자(2010). 청소년 가치관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rtle-Haring, S. & Sabatelli, R.A.(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eck, U. & Beck-Gernsheim, E.(1999).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The Cosmopolitan Turn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09-443.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Bryant, A. L. & Zimmerman, M. A.(2003). Role models and psychosocial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36-67.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W. W. Norton & Company Inc.
- Esterlin, R.(1975). A Framework for Fertility Analysis. *Studies in Family Planning*, 6, 54-63.
- Forrest, M.(1991).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A, 53(8), 2688, 1993.
- Greendorfer, S. L.(1977). Role of socializing agents in female sport involvement. *Research Quarterly*, 48, 304-310.
- Hayes, A. F.(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_\_\_\_\_(2015).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http://www.processmacro.org/>에서 2020.8.15. 인출.
- Hayes, A. F. & Matthes, J.(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pp.924-936.
- Hurlock, E. B.(1978). *Child development*. McGraw-Hill.
- Lamer, B.(2018). “South Korea’s most Dangerous enemy: Demographics”.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8/02/20/magazine/south-koreas-most-dangerous-enemy-demographics.html>.에서 2020.9.20. 인출.
- OECD(2018).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0.9.20. 인출

Abstract

## The Effects of Married Women with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 on Childbirth Behavior: 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Values

Ah Reum Jeong\*·Jun Yo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perceived by married women with children on childbirth, and to verify whether family values and marital satisfaction are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response data of 6,210 married women with children of children were verified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statistical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of childbirth have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childbirth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and childbirth behavior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of childbearing parents showe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Third, it was verified that marriag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and childbirth behavior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link the birth promotion policies with the youth policies in Korea.

**Keywords :**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 Childbirth Behavior, Marital Satisfaction, Family Values

---

\* First Author: PhD, University of Seoul, Dept. of Social Welfare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Dept. of Social Welfare